

地方自治와 大學 發展

李成福
(建國大 行政學科)

해방 이후 정치 체제의 正統性 문제가 제기되고 中央集權的 國家發展戰略이 전개되면서 우리 大學은 본래적인 기능의 수행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근간의 地方自治制 실시는 대학의 本質的 機能의 향상 및 강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대학은 自體改革을 통하여 새로운 地方分權 체제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序說：地方自治의 展開意義

1961년부터 중단된 地方自治의 30년만의 실시는 國家의 여러 하위 체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地方自治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일정한 地域과 住民을 기초로 하는 정부가 그 지역 내의 정부 기능을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地域內 정부 기능은 政府의 기능을 中央과 地方政府 간에 적정히 배분된 기능을 의미한다.

地方自治는 일정한 지역 내의 自治政府가 中央政府로부터 배분된 정부 기능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배분된 政府機能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 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설정되고 주민들 간의

이해 관계에 대한 갈등을 協商과妥協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협상 기술이 정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이 민주적인 가치 위에 정착하게 되고 주민들 간에 內在化된다. 이러한 점이 地方自治가 國家發展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地方自治에 따른 地方政府의 存在는 地域民主化를 통해 지역성의 利得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민주화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므로 지역 차원의 利益을 향상시킬 수 있다.

地方自治를 통하여 국가는 지역사회 住民에 대한 政治的인 教育, 政治指導力의 훈련 및 정치적인 安定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수준에서 주민들의 형평성, 자유 및 반응성을 획득할 수 있다. 지방의 민주화는 정부의 실재적인 사업에 개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의 제공 및 의견 제출을 통해 지역의 민주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國家 전체의 民主主義를 지

역 및 지역 주민에게 內在化시키는 데 공헌한다.

현대 사회에서 民主性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국민들이 教育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민주성을 내재화 및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는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국가의 한 특징인 인구 규모의 거대화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政治過程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실현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민주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民主的 生活人이 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변화·성장해 왔다. 국가 형성 이후 여섯 차례의 政治體制 변화와 세 차례 爲의 정치 개입 등은 정치 체제의 점진적·안정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政治發展에 여러 가지 위기를 표출시켰다. 특히, 5·16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정치 권력의 正統性이 빈약해지자 중앙 집권 체제로 經濟成長을 추구하게 되면서 中央集權的 경향이 하위 체계의 모든 분야에 파급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형평 배분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면서 체제 분화와 함께 분화된 하위 체제를 통합시키는 측면에서 權力의 分散과 統合을 위한 地方分權化 전략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地方自治의 실시는 國家 下位體系의 자율적인 처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中央集中化된 政治·經濟·社會·敎育 및 文化的 여러 부분에 대한 地方分散을 도모하면서 地方의 특색에 맞는 발전을 추진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韓國의 大學은 政治體制와 首位都市를 통한 도시화·산업화 전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大學에 또다른 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政治權力의 선택이 국민의 집약된 의사에 의하여 표출되는 정치 체제의 제도적 정착은 大學과 政治體系의 갈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中央集權 체제에서 地方分權 체제로 전환시키는 地方自治制의 실시는 정치 체계의 分化 및 하위 체계의 自律化를 촉진시키게

됨으로써 여러 하위 체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도 정치 체계의 정립과 지방 자치의 실시에 따른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산업 구조의 개혁으로 인한 고급 기술 인력의 요구는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또다른 해결 과제이다.

2. 中央集權體制下의 大學

政治權力의 변동이 국민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짐작시킨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爲의 政治介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大學도 이러한 정치적 변동의 소용돌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 본래의 기능인 연구·교육·사회봉사라는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치 권력의 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정치적인 변혁기에 1차적인 피해 대상이 되었으며, 대학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두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의 희생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政治發展은 구성 요소들 간의 役割分化, 하위 체제의 自治 및 世俗化의 결합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체제의 역할이 분화되어 자기 영역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처리가 확보되는 것이 정치 체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부분이다.

중앙 집권 체제에서 중앙 정부의 회일적인 정책 집행은 經濟的 效率性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으나, 일률적인 정책의 실시는 지역 차원의 집행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정치 체제의 정통성이 國民意思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는 爲의 개입으로 政治權力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抵抗이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저항에 적극 참여한 집단이 大學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정치 체제 변혁기 및 정치 권력의 변동기에 갈등과 시련을 겪게 된 것이다.

실제로 '61년 爲의 정치개입, '72년과 '80년의 정치체제 변혁기에 정치 환경과 정치 체제 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대학이 이 갈등 과정에서 政治權力에 저항하며 대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內的·質的 構造의 개편보다는 정치 체제의 統治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

단 과정에 수동적인 입장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세계의 學問의 傾向, 科學技術의 發展, 國가 經濟力 規模의 확대 등은 대학에도 끊임없는 내부 구조의 개편과 환경 변화의 적응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정치 체제와의 대립·갈등 속에서 내부적인 개편을 통해 발전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政治權力의 正當性 危機에 대응하기 위한 權威主義體制下에서 정치 권력의 하위 체제는 소수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수동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학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行政을 포함한 大學의 自律權이 대학 자체의 의사로써 집약·형성되지 못하고 정치 체제의 正統性을 보충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대학 본래의 역할 및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이러한 속에서 대학은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였다.

'87년 6월 권위주의 체계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함께 점차적으로 민주적인 정치 체계의 형성이 요구되면서 국민에 의해 政治體制의 正統性이 성립하게 되었다. '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참여에 의하여 진행되고, 이에 따라 성립된 제 6 공화국은 체제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하여 權威主義體制에서의 탈피, 하위 체제의 自律性 보장 및 地方分權體制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정치 체제와 환경 간의 正當性의 문제를 놓고 제기되는 대립과 갈등은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도 이러한 갈등 환경에서 점차적으로 탈피하게 되었다.

하위 체제에 대한 자율의 확대는 대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정부의 規制中心 大學政策은 점차적으로 大學의 自律性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요구되었고, 대학의 自律權의擴大는 대학 스스로 정치 체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이는 곧 대학 자체의 内部的改革과 自律的定着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地方自治制의 실시는 教育自治制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이 점증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地方分權體制 하에서 지방 정부의 존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大學

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地方自治 하에서의 대학은 自律性의 확대를 포함한 점진적인 改革을 요구하게 된다.

3. 首位都市의 成長과 大學의 關係

도시화·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中央集權體制下에서 국가 발전 전략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首位都市인 서울이 대도시로서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인구 및 산업이 서울 지역에 집중하게 되었다. 점점 규모 이익의 창출로 서울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서 기업의 서울 집중화가 현저해졌다. 또한 首位都市인 서울은 政治·經濟·社會·教育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엘리뜨들이 서울에 집중하여 生活 및 社會活動을 함으로써 서울의 成長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 격차의 증대 및 엘리뜨의 서울 집중 거주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투자를 수위 도시에 집중시키고 지역 간의 開發隔差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政治의 중심이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기업가는 정치 집단과의 대면 관계를 위하여 기업의 본사를 서울에 입지시키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지방 도시는 관리·경영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人力充員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층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서울로 流入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수도권 인구는 1,580만 명으로 전 인구의 3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 전국의 45개 중앙 행정 기관 중 31개(69%)가 서울에 있고 공공 법원과 공공 단체의 84%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전국 대기업체 1,711개 중 50%에 해당하는 851개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복지 환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사 역시 전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42%인 1만 5천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서울 集中度는 특히 심각하다. 서울시에 위치한 금융 기관의 예금 총

액수는 33조 8천 3백 20억 원('89년 서울시 통계)으로 전국 예금액의 58.9%에 해당한다. 서울 지역의 대출금 역시 28조 1천 9백 90억 원으로 57.8%를 차지, 전국 통화량의 60% 가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기관의 점포 수도 전국 3,086 개중 42.7%인 1,317 개소가 서울에 자리잡고 있다. 정치·경제의 중심이 서울에 집중하게 된에 따라 고등 교육 기관도 수위 도시에 集中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정부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실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大學政策이었다. 동시에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도 제시하게 되었다.

수도권 대학의 入學定員凍結, 지방 소재 대학에 대한 연구비 및 시설의 집중 지원, 지방 대학의 설치 허가 및 입학 정원에 대한 집중 허가 등을 통하여 地方大學育成策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 비하여 지방 소재 대학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동시에 質的變化의 과정을 갖게 되었다. 政治權力과 함께 經濟權力이 首位都市인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서울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또는 국가 발전 전략 하에서는 지방에 입지한 대학을 발전시키는 정책은 일정한 경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地方政治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지역의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下位部門과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大學의 地域社會에 대한 기여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大學發展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地方自治下 大學의 機能과 役割

地方自治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理解와 함께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政治·經濟·社會·culture의 漸進的分散화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大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지방 정치가 活性化됨에 따라 지역 단위의 엘리뜨 충원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즉, 地域社會에 입지하고 있는企業이 그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생을 충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관련된 기업은 특정 지역의 인력 자원을 교육·훈련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地方大學이 육성되지 못한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地方大學 졸업생이 취업 기회의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 우수 인력이 서울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地方 소재 대학에는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企業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인력을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고 서울의 대학에 良質의 고등 인력이 집중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地方自治의 실시는 地方政治의 力動化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地域社會의 政治·行政·經濟·社會·文化·敎育 등의 하위 체계가 상호 연계되면서 지역을 운영·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은 그 지역의 인력 자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地方政府를 구성하는 政治人과 行政人 등의 충원이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지역에서 교육받은 계통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지방 소재 대학의 기능 및 역할이 변화될 것이며, 이는 大學發展을 형성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地域의 정치 엘리뜨가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 中央政治를 중심으로 형성·충원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의 支持基盤이 정치 엘리뜨의 정치적 생명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 엘리뜨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지역 주민과 상호 연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中央政治와 관련을 맺으며 육성되었다. 이에 따라 엘리뜨에 대한 교육 및 충원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행정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지역의 교육 기관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엘리뜨 충원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정치 엘리뜨에 대한 교육,

지역 사회의 연계성 강화는 정치 엘리트의 자질 향상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대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地域大學의 發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즉, 地方政府를 구성하게 되는 지방 행정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방의 대학이 담당하게 되면서 지방 대학의 위치 및 기능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成長을 촉진시켜 地域社會의 構成體系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地方政府에 요구되는 政策에 관련된 정보·기술·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 소재 대학이 담당하기보다는 中央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中央에 위치한 대학에 연구 용역 의뢰가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이것은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 의욕 및 기회를 상실시키게 되었다. 즉, 양적·질적으로 地方 소재 대학의 成長 기회를 감소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地方自治의 실시는 지방 소재 대학에 지역 사회에서의 연구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즉, 지방 대학에서의 연구 및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이 中央集權體制下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기회의 증가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 사회 대학에 대한 연구 용역 기회의 증가는 대학에 연구 기회 및 연구 비용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대학의 外形的 발전뿐만 아니라 內面的 발전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정 분야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즉, 中央集權體制下에서 대학 발전은 일률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 정책은 대학의 特性이 고려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地域社會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 용역의 기회를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大學發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地域의 特性을 지닌 대학이 등장하게 되고, 지역의 성격에 맞는 대학의 특정 분야에서의 발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대학이 회일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대학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정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의 質的改善와 함께 中央集權化 된 權力·經濟力·人力의 分散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간 격차의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地方分權體制下에서 지방 자치의 실시는 地方次元에서의 政治過程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中央集權體制下에서 지방 행정은 中央政府가 입안·결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地方行政의 效率的執行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地方行政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能率性·效果性·效率性의 강조는 지방 행정의 위치를 수동적인 차원에 고착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地方分權體制下에서는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간에 정부 기능이 배분된 범위 내에서 地方政府의 책임 하에 문제 해결을 위한 政策의立案·形成·執行·評價 등의 전 과정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과정이 地方政府次元에서 형성됨으로써 地域內 제도적 기관들 간의 위치, 기능 및 역할이 역동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제도 및 하위 기관의 역동적인 체계의 형성은 대학의 위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변화를 제기하게 된다. 즉, 지방 분권 하에서 대학은 地域社會 문제 해결을 위한 政策代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政策에 대한 審查·評價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을 위하여 대학은 꾸준히 內部的變化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地方分權體制에서 중요한 것은 大學의 혁신과 기술의 이전 및 수용이 각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國家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지역 간에 정보·기술·혁신 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기술·정보·혁신의 수용 태세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地方分權體制下에서 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기술·정보·혁신 등을 수용하여 지역 사회에 전파·확산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현하는 것이다. 中央集權體制下에서는 기술·정보·혁신 등의 전파가 지방 정부의 자율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의하여 전개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수동적으로 기술·정보·혁신 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이 기술 정보의 전이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지역 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못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지역의 수용 태세 및 능력 등이 수도권에 비하여 열등화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역 개발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地方分權體制下에서는 새로운 기술·정보·혁신 등에 대한 수용력이 지방 정부 간의 상호 경쟁을 통하여 획득·증대되기 때문에 각 地方에 위치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기술·정보·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사회에 전파·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에서 낙오되는 대학은 정보·기술화 시대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存在意義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地方自治의 실시와 함께 地域文化의 창조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된다. 中央에서 관할하는 划一的 文化 형성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文化的 창조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大學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5. 結 語

地方自治의 실시에 따른 지방 정부의 구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大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政治權力의 正當性이 국민의 意思에 의하여 형성되고 集中化된 정치 권력이 분산되어 감에 따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政治·經濟·社會·敎育 등의 관련 기관이 점차 각 지역으로 분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정치의 正統性과 관련된 일 등에서 벗어나 대학 본래의 研究·敎育·社會奉

仕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 규모의 확대, 정보·산업 사회의 도래, 국가 사회 구조의 다원화 등은 대학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대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첨경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정부의 형성은 지역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대학은 정보·기술·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결 대안이 제시될 것이며, 대학과 지역 간에 연계되는 부분이 質的·量的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정 분야가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학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대학의 내부적인 自律權 확대와 大學 權成員 스스로의 자체 개혁이 없이는 대학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으며 대학의 기능과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내부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 및 연구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全日制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교수 및 연구 인력의 충원에 있어서 기회 균등의 보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제공 등이 대학이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즉, 연구 및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대학 분위기의 조성과 대학 사회가 지역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地方自治를 통해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대학 간의 격차가 격차적으로 해소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이와 함께 획일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대학의 성격도 지역 특성에 맞게 형성되도록 外形의 自律이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大學 權成員을 포함한 大學人 스스로의 개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